

서울대 최상위권 비결은 달달 외우는 암기 창의성 없고 획일화 된 시험의 모순 파헤쳐



시험
이노우에 교수 외 지음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국가보다 '시험'에 맹신적이다. 교육의 핵심이 '시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이들의 운명을 좌우한다. 수능 시험 70여만 명, 토익 200여만 명, 공무원 시험 45여만 명 등 유치원 입학부터 대학졸업 그리고 회사에 입사할 때까지 생존을 위한 수많은 시험을 치른다.

그러나 과연 시험이 그만큼 가치가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본 적이 있을까? 그리고 시험은 우리의 실력을 공정하고 정당하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가 보지 못한 시험의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시험을 둘러싼 진실을 정면 돌파해 화제를 모았던 EBS 교육대기획 '시험' 6부작이 책으로 출간됐다. EBS 교육대기획 팀이 출간한 '시험'은 우리 사회를 장악한 시험의 모순을 심층적으로 파헤치고 시험의 문화적, 사회적 요인을 짚어낸다.

책은 서울대생 1100여 명의 데이터 연구, 전 세계 교육현장 탐사, 신개념 미래역량 프로젝트 등의 방송 사례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쓰여졌다. 여기에 다양한 시각 자료를 첨부하고 고3생과 공시생들

의 1년 간의 기록 등이 덧붙여졌다. 책에서는 특히 우리 교육이 우수한 인재들을 어떻게 나오는지 충격적인 예를 보여준다.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 방법을 연구한 베스트 러너 프로젝트에 따르면 서울대 최상위권의 성적 비결은 필사에 가까운 필기다. 수업 중의 농담까지 달달 외우는 암기, 무조건적인 수용으로 이어지는 수동적인 학습태도가 자리했다. 수업의 모든 내용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야 하는 학습 태도가 누적되면 어느새 자신의 생각이 사라지고 만다. 서울대 학생뿐만 아니라 대다수 대한민국 학생들은 이런 학습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같은 목적의 연구 결과를 미시간대에서 적용한 결과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대와 미시간대 학생들의 수업 평가에 따라 졸업 무렵에 완전히 다른 성향을 보였다. 어떻게 학생을 평가하는냐에 따라 학생들의 능력까지 변화하는 것이다. 정답만을 찾는 시험형 인간으로는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는 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없다.

많은 전문가들은 창의성은 없고 획일화된 지식만을 가진 인재들은 결코 미래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경고한다. 책을 관통하는 주제는 시험의 본질을 이해하는 것, 나아가 우리의 의식을 바로잡는 것이 답답한 교육의 현실에서 벗어나 미래를 대비하는 길임을 일깨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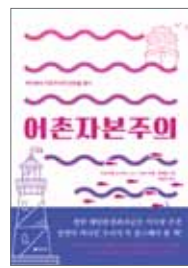
〈북하우스·1만5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인류와 바다 공생 가능한 해답 '어촌'에 있다

어촌자본주의

이노우에 교수 외 지음



지구의 한계를 구할 대안으로 어촌이 주목받고 있다. 본래 인류에게 바다는 보고(寶庫)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시대를 거치면서 무분별한 개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환경오염과 해양자원 고갈 등 여러 문제가 겹치면서 바다는 한계에 직면했다.

신음하는 바다를 구할 수 있는 대안은 없을지? 자본주의의 막다른 길목에서 전 세계는 일본의 '어촌'을 주목하기 시작했다. 인류와 바다의 공생과 지속 가능한 해답이 어촌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 '어촌(里海·SATOUMI)'의 개념은 일본 세토 내해에서 시작됐다. 혼슈섬과 시코쿠섬, 규슈 사이의 좁은 바다로, '앞바다'라는 의미를 지닌다. 또한 '어촌'은 '인공적인 관리를 통해서 생물 다양성과 생산성이 향상된 연안 해역'으로 정의된다. 이미 학술용어로 확립된 만큼 그 개념이 보편화됐고, 어촌은 향후 인류의 한계를 구할 대안으로 부상했다.



어촌자본주의는 무분별한 개발로 한계에 다다른 바다를 살리고 인류와 바다의 공생을 이루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시청 모음.** (광주일보 DB)

그 방안은 다른 아닌 어촌자본주의(里海資本主義)다. 어촌자본주의는 "사람이 인공적인 관리를 통해서 바다를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드는 메커니즘"을 뜻한다. 어촌자본주의는 지난해 소개된 '숲에서 자본주의를 꺼낸다'(동아시아)로 국내에 소개된 '산촌자본주의(山嶺本主義)'의 개념을 포괄하면서도 보다 확대된 개념이다.

어촌자본주의는 인간에게 유용한 미사용 자원을 활용하는 단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자연과 대화하고 적절하게 관리해 본연의 순환을 바로잡고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다.

일본 NHK 엔터프라이즈 책임프로듀서인 이노우에 교수와 '어촌' 취재팀이 지난 1년에 걸쳐 제작한 '어촌 SATOUMI 세토 내해'가 책으로 출간됐다. '어촌자본주의'라는 제목으로 발간된 책은 바다를 살리는 모든 활동을 뜻하는 '어촌'과 자본주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

오른 바다를 소개한다. 이들은 기존의 바다와 연관된 관점은 다른 시각을 견지한다. 즉 종전의 "파괴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선 인간과 거리를 뒀어야 한다"는 상식과 배치된다.

사실 1970년대 고도경제시대를 거치며 세토 내해는 부영양화상태로 바뀌었다. 대규모 간척과 공장이 건립되면서 적조가 발생하고 어획량도 감소했다. 해수욕도 할 수 없을 만큼 '죽은 바다'로 전락했다. 그러나 빈사상태의 바다가 40년의 시간이 지난 후, 어부들과 주민들 그리고 학자와 민간인들의 노력으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책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것은 굴(石花)과 잘피이다. (잘피는 바다 식물 가운데 유일하게 뿌리로 영양을 흡수하고 햇빛을 받아 꽃을 피우는 식물이다) 굴은 부영양화물질을 흡수한 플랑크톤을 먹으며 바닷물을 깨끗하게 만든다. 어부들은 '굴뚝'을 끌고 와 잘피 씨를

뿌렸다. 그로 인해 해양 식물의 산란과 보육장 구실을 하는 잘피는 부영양화물질을 걸러냈다. (2016년 5월 10일 전남 완도군도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바다식물질을 맞아 잘피 이식 행사를 실시했다)

이렇듯 어부들은 농부처럼 씨를 뿌리고 숲을 가꿨다. 바다의 자원들을 관리하는 이른바 바다와 사람의 상부상조가 형성된 것이다.

책은 단순히 오염된 바다를 살리는 데에만 초점을 두지 않는다. 바다를 어부들이나 해양학자들만의 관심 대상에만 남여서는 안 되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것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인간의 행동 또한 자연 순환의 한 요소로 봐야 한다는 논리와 맥을 같이 한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동아시아·1만3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100세시대 어떻게 하면 후회없이 행복한 인생 살까



왜 생의 마지막에서야...
찰스 E. 도젠 지음

누구나 은퇴 후에는 여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고자 한다. 100세 시대라는 말이 도래했지만, 노후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30년 가까이 심리상담 전문가로 활동해온 찰스 E. 도젠이 펴낸 '왜 생의 마지막에서야 제대로 사는 법을 깨닫게 될까?'는 100세 시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조명한다.

저자는 30년 간 요양원에서 노인들과 심리상담을 하며 얻은 삶의 진리를 25개 질문으로 정리했다. 어떻게 하면 불안과 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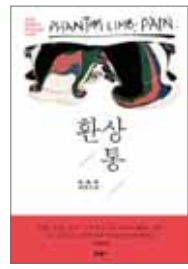
정에서 벗어나 후회 없이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지를 제시한다.

노인들의 고통의 원인은 소원해진 가족 관계, 바쁘게만 살아온 지난날에 대한 후회, 외로움과 고립감, 존중받고 싶은 마음 등 아주 평범한 데서 기인한다. '고통과 괴로움 없이 나이 들 수 있을까?', '젊음을 잃는 대신 얻는 건 무엇일까?', '주어진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려면?' 등의 질문은 간단하지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다.

각각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요양원 노인들의 일화를 읽다보면 돈이나 성공만을 좇느라 삶의 우선순위에 밀려놓은 진짜 중요한 것들을 깨닫게 된다. 요양원이야말로 삶의 걸치레가 벗겨지고 인간 본연의 모습을 드러내는 곳이자 가장 본질적인 인간 행복의 조건을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이기 때문이다. **〈글담·1만3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수상작품



환상통
이희주 지음

제5회 문학동네 대학소설상 수상작 '환상통'이 출간됐다. 중앙대 국문과에 재학중인 이희주 양이 저자로, 소설은 아이돌 팬들에 대한 생생한 증언을 담고 있다.

수상 소식이 발표된 순간부터 아이돌 팬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이 작품은 아이돌 그룹의 한 멤버를 사랑하는 이십대 여성 m과 만옥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한 남자의 목소리로 이루어져 있다.

m과 만옥처럼 아이돌 그룹에 열광하는 어린 여성들을 사회에서는 "빠순이"라 다분히 경멸적이고 비하적인 단어로 지칭한다. 물론 '빠'이라는 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단어가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히 담아내기 어려운 다양한 면들이 깃들여 있다.

소설은 휴학생 m이 서술자로 등장해 이야기를 이끌어간다. m은 N 그룹의 멤버 M을 사랑해 사인회, 공개방송, 행사 등을 열성적으로 찾아다닌다. m은 자신의 체험을 흘러보내지 않고 기록으로 남겨 소유하고자 하는데 그녀의 수단은 문장이다. m이 있는 곳에서 무대 위의 M은 겨우 작은 점처럼 보일 뿐이기에, 그녀는 문장을 통해 그 잘나를 세밀하게 남겨두려는 것이다. **〈문학동네·1만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특권만 누리고 의무는 저버린 한국 상층 질타



특혜와 책임
송복 지음

"상층은 있는데 상류사회가 없고, 고위직층은 있는데 노블레스 오블리주 없는 사회. 노블레스 오블리주는 특혜받은 사람들의 당연한 의무이자 책임인데 이를 모른다."

특권만 누리고 의무를 저버린 한국 상층과 우리나라에 대해 여든 노학자가 가차 없는 채찍을 들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가 특혜만 있고 책임은 없는 한국 상층을 질타하는 메시지 '특혜와 책임'

을 퍼냈다. 이들에 대한 저자의 평가는 조금의 주저나 배려도 없다.

우리보다 앞서 민주화한 선진국들이 이 변함없이 200년 이상 선진국가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저자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에서 찾고 있다. 오늘날은 그들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저성장, 양극화에 신음하고 있다. 그럼에도 그들 국가들이 선진국으로서 지위를 오랜 세월 지켜 나가게 하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게 하는지를 분석했다.

저자는 2000년 이후 우리 상층의 문제점을 정치 고위직층을 비롯한 여타 고위직층에서 찾아, 그들이 지금 갖고 있지 못한 다섯 가지(無)를 분석했다. **〈가디언·양장 2만원 반양장 1만6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0-3600-9955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Step 1. 방수정리
Step 2. 단열방수시트
Step 3. 외벽아트패션시트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옵션이 적용된 프로그램에서 만나보세요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던디자인이 잔 엔디나와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헛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은 가는데!!!

2중단열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주세요.